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69호 【루계 제25778호】 주체106(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사 설

전당, 전군, 전민이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멸적의 보복의지를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유엔무대에서 전체 조선인민을 멸살시키겠다는 천인공노할 망발을 줴친 미국집권자와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해나서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백두산대국의 힘찬 진군앞에서 완전히 리성과 분별을 잃고 미쳐날뛰는 미제의 피수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며 세계의 면전에서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나발을 불어댄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써 다스릴 초강경립장을 엄숙히 천명한 중대한 경고이다.

명도자의 결심은 곧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이고 실천이며 한다면 반드시 하고야마는것은 주체조선의 영웅적 본때이다.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 천백배로 다지고다진 최강의 정치군사력을 총폭발시켜 악의 원흉을 죽탕쳐버리고 가증스러운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해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실천행동을 멈춰세울 힘은 더이상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을 이끌어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것입니다. 》

오늘 우리 조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속에서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높이 솟아 무적필승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그 어떤 군사적선택이나 가혹한 제재로도 우리를 절대로 눌배울수 없게 되자 미국의 늙다리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는 미친 폭언을 마구 해대며 정신병자처럼 놀아대고있다.

이번에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트럼프가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함부로 짖어댄것은 우리에 대한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정신병적인 광태이다. 국제사회가 미친 불량배의 궤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달을 보고 마구 짖어대는 미친개와 같은 겁에 질린자의 넉두리, 개나발에 불과하지만 감히 우리 공화국의 절멸에 대해 뇌까린 이상 더는 용서할수 없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최선이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트럼프와 같은 정신병자, 미치광이, 조선민족과 인류의 화근은 제때에 철저히 박멸해버려야 한다.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을 감히 어째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는 미제승냥이를 마지막 한놈까지 다 찾아내여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끓어오르는 보복열기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의 수뇌부가 없는 조선, 우리 천만군민의 삶에 대한 생각할수 없다. 수령결사옹위야말로 조선혁명가들의 제일생명이며 최대의 사명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과 중상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침해이며 야만적인 민족멸살행위의 극치이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참수작전》에 광분한것으로 하여 이미 열백번도 퉁지처참당해야 할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또다시 더러운 입으로 감히 온 세계가 우러르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제명을 다 산 늙다리정신병자가 되까린 망발이기에 더욱 이가 갈린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광,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자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이 행성우에 절대로 살아있을수 없다. 태양에 대고 감히 개나발을 짖어댄 늙다리정신병자에게는 처절한 죽음만이 남아있다. 세계는 수천만개의 핵폭탄이 되여서라도 미국땅전체를 완전피멸시킬 일념에 불타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수령결사옹위전에 의하여 원쑤들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의 존엄과 삶을 말살하려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투철한 혁명적의지이다.

유엔무대에서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피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흉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트럼프의 히스테리적인 폭언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있다. 세계 각국의 외교대표들이 모인 석상에서 2 500만의 공화국인구를 전멸시키겠다고 줴친 트럼프의 류례없는 망발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는 절멸시키겠다는 로골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광기어린 폭설을 늘어놓은 파쇼광, 독재광은 이 지구상에 살아숨쉴 자리가 없다.

자기 조국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민족의 존엄과 삶을 헤치려는자들과는 사생결단으로 싸워 결판을 내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불타는 적개심과 원쑤격멸의 기상을 안고 조국보위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것도 우리 민족을 해치려는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철저히 소탕해버리기 위해서였으며 허리띠를 조이며 핵무력강화의 험난한 생눈길을 헤쳐온것도 조국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자기 나라를 마구 짓뭉개여도 참아야만 하는 힘이 없는 인민도 아니며 덩치가 커가지고도 금전을 꽃아 미국앞에 납작 엎드리고 구걸하면서 존엄을 파는 그러한 나라의 인민은 더욱 아니다. 적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를 들이대고 핵을 내대면 핵으로 짓뭉개버리며 조선민족의 존엄과 삶을 헤치려는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깡그리 초토화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보복의지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을 멸살시키려는 흉심을 세계의 면전에서 빠짓이 드러낸 불망나니의 대갈통에 가장 무서운 불소나기를 들씌울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악의 제국을 반드시 불로 다스려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삶의 전부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사수하는것보다 더 신성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에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쑤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수령보위, 혁명보위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여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전민항전대오에 일심단결의 기상과 굴함없는 공격정신, 원쑤격멸의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게 함으로써 적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완전제압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적의 아성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게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수천수만의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피멸시키겠다고 지껄인 미친개를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멸적의 의지를 천백배로 가다듬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숨에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숙원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이 우리 국가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기려 한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일격에 격파분쇄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여야 한다. 전체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만약 적들이 덤벼들면 한놈도 남김없이 쳐부시기 위한 전인민적인 소항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며 자기 초소와 일터를 튼튼히 보위하고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이 가리키는 병진의 한길을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불장난을 즐기는 미국의 불망나니, 깡패의 넉두리는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쥘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늙다리미친개의 망발에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도 없고 추호도 변할수 없는것이 병진의 한길로 굴함없이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우리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당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국방과학전사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3. 18혁명》, 《7. 4혁명》을 안아오고 7. 28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식의 주체무기, 주체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전선의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자력갱생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적대세력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번영하는 길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일으켜 적들의 침략책동과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더욱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불패의 핵무력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다.

모두다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교육자들모두의 숭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씨야의 신문《꼼메르싼뜨》, 인터네트홈페지들인《빠뜨리오뜨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그 무엇으로써도 자강력에 기초한 조선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지금 세계의 관심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에 집중되고있다.

번쩍거리는 남의것보다 자기의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과감히 발휘하여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는 불굴의 인민이 사는 나라 조선을 보며 국제사회는 이렇게 경탄하고있다.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 《조선에 대한 수십년간의 제재는 무의미하다는것이 실증되였다. 》, 《조선의 경제는 외부세계에 예속되지 않은것이며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 《미국을 멸망시킬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조선이다. 》…

얼마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조선에 대한 제재를 날로 강화해왔다.

허나 제재가 가해질수록 더 강해지는것이 조선의 자강력이다.

지난해 미국의 새로운 제재와 전쟁도발소동에 려명거리건설선포로 대답한 조선은 그 방대한 건설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면상을 통쾌하게 후려쳤다.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는 조선의 자강력을 더욱 분출시켰고 그 자강력이 이제는 미국의 명줄을 조이게까지 되였다.

자멸의 길인줄도 모르고 허망한 제재놀음에 미쳐있는 미국, 바로 여기에 현대미국의 비극이 있다.

로씨야신문《리오 빠노라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고귀한 전통인 자력갱생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오늘날 조선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와 지하전동차가 하늘을 날고 땅속을 달리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견지하여오신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이렇게 평하였다.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바마행정부에 뒤이어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떠들며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에 매여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다.

조선은 그 어떤 선진국들의 원조나 방조도 없이 오직 자력자강의 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들었다.

그것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단적인 제재속에서 이룩한 최상의 성과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나라이다.

영국신문《프로레타리안》은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조선을 핵위협이나 제재로 굴복시키려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며 어리석은짓이다, 조선은 지난 수십년동안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력자강해온 나라이다고 보도하였으며 베네수엘라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그 무엇으로써도 자강력에 기초한 조선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자강력을 키워왔기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위용떨치며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갈수 있는것이다.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에서 살려는 조선인민의 지향은 오늘에 와서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네팔정부 관개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오래고도 가혹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여러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 비결은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고 그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온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나라는 조선처럼 계속 발전하고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귀중한 모든것을 잃고 폐허로 되고만다는것이 현세기의 심각한 교훈이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아프리카의 실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체로 살아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힘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되는것은 물론 인민의 운명을 지킬수도, 독립을 수호할수도 없다, 아프리카의 진보를 이룩하려면 조선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함주군 평풍덕염소목장과 북청군 신창로동자구에 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8월 평풍덕염소목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염소마리수를 늘이고 젖가공제품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신창로동자구에 모신 모자이크벽화에는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수산업을 발전시키며 반농반어업으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모된 단천시 가웅리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정중히 모셔졌다.

룡양광산 포거농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광산을 찾으시여 광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도안의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에서는 경축모임이, 이란, 프랑스, 브라질,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가, 나이제리아, 앙골라에서는 독보회가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쌀농목장 지배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하고 오늘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방력강화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창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고 조국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싸라와주 나가리농목장 지배인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조선의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려명거리가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려명거리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일떠선 만리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고 격찬하였다.

앙골라의 여러 인사들은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조선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에, 민주꽁고, 우간다, 인도네시아에서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의 핵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하면서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그이의 건국업적을 칭송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 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고 제재압박의 도수를 날로 높이고있지만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조선은 회세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백승만을 떨칠것이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인사들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이어나가실뿐아니라 나라의 자주권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시였다, 조선인민이 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라비뜨라 바호떼라 쁘라따마회사 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아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여온 성스러운 로정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스웨리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는 주체조선의것이다

히스테리에게는 오직 힘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트럼프, 천하의 그 미치광이가 이제 더는 감히 성스러운 조선의 이름을 더러운 주둥이에 담지 못하게 갈가리 찢어죽이자!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불구대천의 살인악마, 늙다리천치에게 수소탄불소나기를!

지금껏 잠재한 강력한 보복수단들을 총발동하여 불망나니, 깡패무리가 살판치는 악의 소굴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리멸렬시키자!…

지금 우리 조국, 이 나라 천만군민은 력대 그 어느 미국집권자도 입에 담기 두려워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특대형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 히스테리를 죽탕칠 멸적의 투지로 활화산갈이 끓어번진다.

평화를 원하여 참고참았던 우리의 인내성도 마침내 극한점을 넘어섰다. 온 나라가 활화산으로 변하였다. 사풀치는 쇠물같은 복수열기, 천백배의 보복열기가 이 땅을 통째로 휩싸안았다.

영웅한 우리 혁명무력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고 피를 펄펄 끓이며 격동상태에 진입하였다.

천만의 대오가 백년숙적 미제와 마지막결판을 보고야말 증오와 결전의 열기로 맞그대로 산악같이 와와 들고일어나고있다. 이런 노호한 인민과 감히 맞설수 있는가.

미제의 희떠운 객기가 우리에게 통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한것은 주체조선, 그 위대한 이름은 명실공히 승리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승리, 이는 불멸의 존함그대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걸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것이다.

그이는 곧 승리이시고 승리는 곧 그이이시다.

수십년간 반미대결전을 치른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최근년간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련속이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5년전 8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서 울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의 선언을 잊지 않고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 적들이 불질을 해대면 호되게 답새기라.

적들의 책동은 우리 나라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규탄받아 마땅한 추태이다.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철의 신념이 선군절과 더불어 또다시 세계를 진감하지 않았던가.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적들이 화약내풍기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때에 전선동부에 위치한 최전연초소에 새겨진 천하제일명장의 멸적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최근 역도무리들의 전쟁광증때문에 조국의 최전연지대 전방의 공기가 좋지 않다. 이제 적과 맞불는 기회가 오면 부대의 무쇠주먹으로 피뢰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번 제대로 맛을 보여주자.

원쑤격멸의 신념을 만장약한 영용한 장병들은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다지고다져온 증오와 복수의 활화산으로 원쑤의 아성을 모조리, 모조리 불바다속에 처넣음으로써 쌓이고쌓인 천추의 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기개로 산악처럼 일떠서지 않았던가.

4년전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던 때 전전선을 종횡무진하시며 적들을 수세에 빠뜨리고 장쾌한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르게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선시찰, 그 경이적인 날과 날들은 또 그 얼마나 사변적이였던가.

침략자들이 감히 선불질한다면 몸서리치는 타격을 안기고 원쑤들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결사의 의지가 차넘친 훈련장들이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적들과는 반드시 한번은 맞서싸워야 한다는것을 항상 잊지 말고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불은 불로 다스리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모르는 멸적의 의지가 인민군장병들이 틀어쥔 총검마다에 서리발치고있다. 원쑤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새없이 호되게 답새기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이 우리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

백두산악갈은 기상을 안으시고 서리발칼날의 시선으로 원쑤를 발아래로 굽어보시며 백만대적도 일거에 취락펴락하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상,

무비의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천하제일강자만이 이런 특출한 위상으로 세상을 경탄시킬수 있는것이다.

과연 어느 놈이, 어느 미친 승냥이무리가 감히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심장을 열화같이 불태우시며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조국의 《완전파괴》를 함부로 줴쳐대느냐.

트럼프, 인두겁을 쓴 야수, 네놈따위가 감히?

국건설대업의 승전포성으로 세계를 들었다놓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비약에 전률한자의 필사의 몸부림이며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쓰디쓴 참패, 바로 이것이 미국의 숙명이다. 아직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개꿈에서 깨여나지 못한채 미쳐날뛰는 미제의 몰골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은 우리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제재책동속에서도 어떻게 만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달려날에날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는지 아직도 보지 못하는가.

우리 조국에서 련속 울린 장쾌한 대륙간탄도로케트폭음, 수소탄폭음이 들리지 않는가.

조선은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니다.

과연 누구때문에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기나긴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를 뼈에 새긴 인민, 수령결사옹위를 위해,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천만이 총폭탄이 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불사신마냥 일떠선 인민이 앞에 있다는것을 모르는데 바로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의 비극이 있다.

력대로 참패만을 거듭해온 미제침략자들에게 우리는 선언한다.

미친개에게 무자비한 핵불소나기를!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리라!

원쑤들의 그 어떤 망발도 행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다. 오늘처럼 복수자들의 격노한 함성이 천상천하를 뒤흔든적 있었던가.

불패의 선군조선은 지구상 그 어디라도 원쑤들이 도사리고있는 곳이면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릴수 있는, 더럽고 흉악한 적들을 씨종자까지 말리울수 있는, 영영 재생불가능하게 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과연 어느 놈이, 어느 미친 승냥이무리가 감히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심장을 열화같이 불태우시며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조국의 《완전파괴》를 함부로 줴쳐대느냐.

트럼프, 인두겁을 쓴 야수, 네놈따위가 감히?

천만의 보복열기가 하늘에 닿았다.

력대로 우리를 괴롭힌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기고도 성차지 않아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을 당한 때에도 칼을 물고 달려든 미제와 온갖 어중이떠중이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며 그 무슨 《참수작전》, 《평양점령》을 줴쳐댄 천추에 용서 못할 사악한 무리들,

오늘은 입에 올리기조차 치떨리는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공공연히 줴쳐대는 이 철천지원쑤들에게 진짜전쟁맛, 조선의 수소탄맛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줄 기개로 폭풍노도쳐 떨쳐나선 천만의 복수자들의 멸적의 의지가 이 땅을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게 한다.

우리에게는 백전백승의 절대의 원천이 있다.

적들이 한수를 쓰면 백천수로 적들을 제압하시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한번 내디딘 병진의 길에서 0.001mm의 탈선도 허용치 않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위대한 강국의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계승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천출명장의 신념과 담력을 닮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위하여,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사랑하는 우리 제도를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울 세상 제일 강한 군대와 인민이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망발을 함부로 줴친 얼빠진자, 그 아부추종군들을 피멸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는것이 격노한 복수자들의 함성이다.

아메리카식인종무리는 피멸을 기다리라.

이 땅에 다시는 정전이란 없다. 이제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릴 조선의 불뢰성이 머지는 그날은 바로 이 행성의 크나큰 사변인 미제의 마지막순간, 비참한 종말의 날로 될것이다.

최후승리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무궁번영을 위하여 사생결단의 신념과 투지로 노도와 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온 나라가 복수의 활화산이 되여 끓어번진다. 감히 우리를 《완전괴멸》시키겠다는 천인공노할 망발을 줴쳐댄 천하의 불망나니, 미친 깡패를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보라,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강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틀어쥔 우리 혁명무력이 대양건너 악의 본산에 징벌의 용암을 들씌울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는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사회주의전야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농장원들이 총을 잡고 군인들과 같이 원쑤격멸의 한전호에 설 열의에 넘쳐있다. 800만 청소년들의 심장이 800만의 총폭탄이 되여 악의 제국의 명줄을 단숨에 결딴낼 멸적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려야 할 때가 오면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인대단결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일심단결!

우리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이것은 결코 수사학적표현이 아니다. 미제는 우리 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원쑤들은 우리 군대의 무장력이 발휘하는 위력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추산할수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있는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최신과학기술수단으로도 계산할수 없다.

력사를 돌이켜보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조선사람을 우습게 알고 덤벼들었다가 세계의 면전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저들의 방대한 병력과 비행기, 땅크, 함선 등 현대적인 군사기술기재들을 들이밀다 못해 유엔의 간판밑에 숨한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하였지만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게시고 그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군대와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1950년대의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 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설쳐대는것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원자탄과 보병총의 대결은 다시 없다. 우리 조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하늘에 닿은 우리의 긍지와 배심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것이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천만의 대오가 성새, 방패가 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쳐들고 온갖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수령결사옹위, 조국보위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를 향하여 파감히 돌진하는것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우리를 똑바로 보라. 시시각각 이 땅에 차넘치는것은 천만이 총폭탄이 되여 악의 소굴인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와 필승의 기상이다. 이런 군대와 인민의 힘 당할자 세상에 없다.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온 우리 천만군민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우리 인민앞에 도전하여나선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미제를 기어이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처박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천만이 총폭탄되리라

우리 식의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이것이 설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얼간망둥이들,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미제원쑤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대한 선군조선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에서 격노한 백두산총대가 얼마나 무섭게 뇌성쳤던가.

최후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침략의 무리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리고야말 원쑤격멸의 의지로 경기대회 참가자들의 심장은 불을 안은듯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 내리자 경수송기들이 초저공으로 훈련장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콩볶듯이 울리는 총성, 초구치는 화염,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훈련장, 종횡무진으로 적대상물을 불마당질하는 전투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련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 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승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우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통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복수의 불, 징벌의 번개!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으로 놈들을 단숨에, 단매에, 단방에 가차없이 죽탕쳐버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진짜총대맛, 진짜전쟁맛을 똑똑히 보여주고야말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경기대회였다.

정녕 원쑤들이 몸서리칠 준엄한 경고가 어찌 이뿐이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 인민군대의 화력타격훈련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우리 주체탄들의 장폐한 뇌성은 미제호전광들에게 가해질 무자비한 징벌이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한 엄숙한 경고였다.

빈말을 모르는 선군조선의 거듭되는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친 승냥이무리 미제,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괴멸》을 줴친 이 악의 무리가 움쩍하기만 하면 우리 혁명무력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처절한 징벌의 타격을 가할것이다. 우리의 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지구상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지리멸렬될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질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침략의 무리를 씨종자도 없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우리 공화국은 반제자주의 성새, 사회주의의 보루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나선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를 발표하신 30돐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제정치정세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76(1987)년 9월 25일 력사적인 이 로작을 발표하시고 심오한 사상과 철의 론리로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반제투쟁의 진리와 그 승리를 위한 리론실천적지침들을 명확히 밝힌 로작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된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30년간 우리 공화국은 지구우에 사회주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 힘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보다 더 강하며 반제자주,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하였다. 이 나날에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 세계만방에 끊임없이 위용떨치였고 오늘은 제국주의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을수 있는 강위력한 실체로 빛을 뿌리고있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 우리 조국이다.

반제투쟁사에 특기할 련전련승의 기적을 아로새겨온 지난 30년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미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공통된 지향이다. 하지만 침략과 전쟁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것은 저절로 실현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와 환상을 가졌다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당한 나라와 민족들의 비참한 운명이 이것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사활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공화국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타승하는 반제혁명전쟁의 시대적모범과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안기는 백승의 전통을 창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승승장구하며 국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룡성번영하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선다는것은 곧 제국주의의 멸망이 앞당겨진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오늘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한사코 가로막기 위하여 더더욱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이번에 미제의 괴수인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공화국을 절멸시키겠다고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것은 우리에 대한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이다. 미제가 아무리 미쳐날뛰여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절대로 당해낼수 없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승리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고 파멸의 운명은 미국에 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며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필연코 패하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철리이다. 반제투쟁의 오랜 력사와 전통, 풍부한 경험과 불가항력적힘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은 주체의 강국이다.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판계발전의 기초이다. 나라들사이에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 국력에서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지배와 예속, 명령과 복종관계는 허용될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고수하고 자주성의 원칙, 자력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의 한길, 자력갱생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풀어나가고 대외판계에서도 자주적태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경하게 나오면 초강경으로 맞서고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매여달리면 자강력을 증대시키며 자력갱생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자주의 강국이 우리 공화국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 《반테로전》의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있다. 덩치큰 나라들도 부당하고 부정의적인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딸라제국의 힘에 눌리워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판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떼지어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배심있게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가고있으며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국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자주정신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을 무섭게 다불려대는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을 반제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고수하고 견지하면 제국주의의 생존공간은 없어지게 되며 그 멸망은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동방일각에 자주의 성새로 더 높이 솟아 세계자주화위업을 확신성있게 선도하며 반제투쟁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군력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패배만을 안기는 불패의 군사강국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약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발급밑에 짓밟히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고만다. 막강한 군력우에 평화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며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이다. 대국들의 리해판계가 엇갈려있고 방대한 군사력이 집중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고 그 피해는 전지구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들이 밀려가고 핵전쟁으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들이 평정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으로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있기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무력강화조치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다 못해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려고 핵전략자산들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고있지만 군사의 최강국으로 전변된 우리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수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절대병기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전략잠수함 탄도탄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우리 공화국이다. 9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의 장쾌한 폭음은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며 고달프게 살아가야 하는것이 핵불량배국가인 미국의 숙명이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우리의 핵공격능력이 크고 강해질수록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진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이 계속되는 한 병진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백두산혁명군이 있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다지고다져온 막강한 전쟁억제력, 자위적국방력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붉은기가 높이 휘날리는 불패의 강정보루이다.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가 과학이라면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비과학이다. 때문에 력사적으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가장 첨예한 대결로 되여왔다.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지난 시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며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더욱 빛을 뿌리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사상과 리념을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 사회주의본태를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여온것이 우리 공화국이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당당히 맞서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비약을 일으켜나가는것을 보고 세계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있으며 최우선시되고있다. 정치와 군사, 경제도 오직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문화도 인민적인것만이 장려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소중한 화폭들은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 참혹한 재앙이 닥쳐와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신념으로 더욱 굳게 간직하고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락원을 지키고 꽃피워나가는데 자신들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기치높이 끊임없이 승승장구하는 근본비결이 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지금 미제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제국주의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앞날이 없는 제국주의, 인민의 무덤인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윤 철 희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날강도 미제의 정수리에 징벌의 철추를!

증오의 불길 세차게 타번진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지난 9월 22일, 이날은 평범한 날이였다. 허나 례사롭게 흘러가지 않았다.

바로 이날에 있은 일이다.

축로종합작업반과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숨죽은 1호소성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있었다.

이틀전 가소로의 내화벽돌이 무너져 1호소성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천수백℃가 넘는 로가 다 식자면 아직 기다려야 했던것이다.

한초한초 시간이 흘러갔다.

이때 전투장으로 방송선전차가 들어섰다.

잠시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을 읽는 방송원의 격앙된 목소리가 온 구내에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성명보도가 끝났으나 누구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혈되여 있었다.

《미친 늙다리가 감히 어디다대고 험담질이야.》

《정신병자같은 놈이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겠다니 물속에서 불지피기지.》…

여기저기서 분노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이윽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나섰다.

《동무들,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 인민을 철멸시키겠다고 꿰쳐댄 늙다리미치광이를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입니까.》

열기띤 목소리들이 울려퍼졌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미친 승냥이를 소성로속에 쳐박아넣겠습니다.》

《우릴 믿어주십시오. 몇시간내로 로를 살려내겠습니다.》

이어 그들은 로속으로 뛰여들어갔다.

누구도 주춤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가슴속에 타번지는 복수의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던것이다.

그야말로 총포성없는 전투였다.

소성로의 불길로 늙다리미치광이를 태워죽이자!

다시는 악다구니를 놀리지 못하게 상원세멘트로 주둥이를 때몰해버리자!

이런 증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들은 결사전을 벌려나갔다.

격전의 분분초초가 흘러갔다. 련합기업소 지배인 윤재혁, 기사장 윤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 끝끝내 소성로보수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리고 증유를 전혀 쓰지 않고 미분갈탄으로 소성로의 착화를 진행하였다. 소성로의 불길이 타래쳐오른듯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명당지구의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소성로의 불길, 그것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옹위하여 결사의 성새를 쌓은 상원로동계급의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세멘트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상원의 로동계급은 늙다리미치광이에 대한 보복열기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한g의 세멘트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증산전투를 힘차게 벌려나갔다.

원쑤격멸의 의지인듯 소성로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글 본사기자 신 철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원쑤격멸의 기상 서리발치는 협동벌

각지 농촌들에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에게 된매를 안길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 원쑤격멸의 기상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차넘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한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가을걷이전투에 더욱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각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원쑤격멸의 의지가 당면한 강냉이가을걷이전투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천하제일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고 몇십, 몇백개의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가슴마다에 새긴 농업부문 일군들은 과학적으로 세운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피》라는 미국집권자의 천인공노할 망발에 격노한 평양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강냉이가을걷이전투의 앞장에 섰다. 시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일정계획을 그 어느때보다 높이 세우고 농장들을 맡고 내려가 전투조직과 경제조직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이 날알허실을 없애고 나아가서 적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해나선 만경대, 사동, 락랑구역과 강남군을 비롯한 많은 구역, 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이미 강냉이가을을 끝낸 기세로 당면한 영농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결사의 의지를 만장약하고 떨쳐나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농업전선을 지켜선 자신들이 나라의 쌀독을 더 많이 채우는것이 혁명의 최고존엄을 지키고 만복을 꽃피우는 길임을 심장에 새긴 이들은 벼가을전에 강냉이를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연안, 청단, 배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 강냉이대베기와 이삭따기, 운반, 보관 등 모든 공정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군들이 농장들에 내려가 미진된 문제, 걸린 문제들을 함께 찾고 현지에서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드높은 자각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강냉이가을걷이실적을 올리고있다.

적들의 그 어떤 제재와 위협도, 혹심한 자연재해도 불사신처럼 일떠선 사회주의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고 이들은 매일 일정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한 다른 농촌들의 농업근로자들도 조국수호정신을 최대로 분출시켜 한이삭의 강냉이도 허실함이 없이 나라쌀독에 채워가고있다.

강 금 성

단 상

불타는 전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천만군민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 없는 조선의 진모습이고 원쑤들은 백번 죽어도 리해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생리이며 당과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혁명적단결, 바로 이것이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우리의 최강의 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이 재명벌의 시누런 벼바다를 누비며 찌렁찌렁 울려퍼질 때였다.

트럼프와 그 전쟁미치광이패거리들을 당장 찍어버리겠다며 시퍼런 낫을 번쩍 추켜드는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펑펑 튕겼다. 그들이 원쑤격멸의 총창마냥 낫을 억세게 틀어쥐고 일손을 다그치는데 리안의 년로보장자들까지 낫이며 숫돌들을 안고 달려나왔다.

《낫을 가는건 념려말라구. 우리 공화국의 수천만 인구를 다 전멸시키겠다구? 감히 어디라구. …》

《그놈들이 이 땅에 수천만의 핵폭탄이 있다는것을 아직도 모르는가본데 우리가 정신이 번쩍들게 해주자구.》

힘주어 썩썩 낫을 가는 년로보장자들, 미친 승냥이의 목을 단칼에 베듯 시퍼렇게 날이 선 낫으로 벼들을 싹싹 베어눕히는 새 세대 농업근로자들…

풍요한 가을의 전야는 황금빛을 띠고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각 나의 눈가에는 전야가 붉게만 어려왔다.

침략자 미제와의 최후결전장마냥 격렬하게 안겨오는 전야.

천인공노할 트럼프의 망발에 분노하여 떨쳐나선 이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천백배의 복수심과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이 그대로 비끼여 붉게붉게 타는것만 같은 사회주의협동전야…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는 이제라도 눈깔을 똑바로 뜨고 우리 조국 아니 불타는 이 나라 전야를 보라.

이 땅에는 800만의 총폭탄만이 아니라 수령결사옹위,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한 수천만의 핵폭탄이 있다. 우리에게는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이라는 땅덩이가 하나의 거대한 과녁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천만 대 1,

천하의 돌대가리라도 이것만은 대번에 계산해낼것이다.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일것인가를. …

본사기자 장 은 영

한줌의 재도 남지 않게 모조리 날려보내리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천길지하막장이 화산을 안았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없애버리겠다는 폭언을 유엔무대에까지 나서서 꺼리낌없이 내뱉은 트럼프의 망발에 검덕의 광부들이 치솟는 분노를 안고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았다.

분노가 비낀듯 용을 쓰는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쥔 이곳 광부들이 상부와 심부지구 지하막장들에서 암벽을 드세게 내밀며 이 기세로 태평양밑으로 굴을 뚫어서라도 악의 땅덩어리를 통째로 발파해버리자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부위원장 리명식동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하고 아메리카돌대가리들에게는 더이상 말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버릇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단숨에 통구멍을 내여 한줌의 재도 안남게 하늘로 날려보내겠다는 검덕광부들의 격앙된 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우리는 검덕로동계급의 심정을 잘 알고있다.

미국파 적대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사상 최대의 《제재결의》를 조작해냈을 때 가소로운 미국에 조소를 보내던 검덕로동계급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난 8월 사상 최대의 《제재결의》가 조작된 그날 우리는 고경찬영웅소대와 함께 101호 채굴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발파심지에 불을 달며 고경찬영웅소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적 넉두리게 아직도 그타령인가. 아무리 둔한 돌대가리이라고 한들 어쩌면 그렇게도 암둔하단 말인가. 제재의 썩은 방망이 한개를 내대면 병진의 핵폭탄 열백개 날리는 조선인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돌대가리들아, 〈제재〉넘불이나 실컷 외워라. 소대, 3년분계획고지 점령을 향해 앞으로!》

그렇다. 미제를 피수로 한 떼무리들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제재의 쇠사슬을 흔들어댔어도 나라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땅에서는 자강으로 더욱 충천한 힘이 기적의 불길로 치솟았다.

고경찬영웅소대가 만리마대진군의 기치높이 3년분계획완수를 눈앞에 두고 총돌격전을 벌려나갔고 박태선영웅소대, 박호철채준소대 등 수십개 소대들이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떨쳐나섰다.

제3선광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시하며 수백만t 능력의 부선계통이 훌륭히 개건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었고 검덕산지구에서는 새로운 갱개발전투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였다.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검덕로동계급의 배심은 더욱 든든해만진것인가.

그것은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쥐시고 대양건너 미국을 멸망의 풍포로 전률케 하시는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여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이 검덕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자리잡고있기때문이리라.

하기에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피》를 꿰친 트럼프의 망발에 검덕로동계급은 하나의 목소리로 대답하고있다.

철옹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아메리카돌대가리들에게 제대로 버릇을 가르쳐주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미제에게 영원한 멸망을!

본사기자 리 철 옥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릴 멸적의 기상 차넘친다.
—김종태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 성 북 찍음

련결제방공사에서 일대 혁신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을 이끌어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것입니다.》

복수의 피가 온몸에 끓어넘친다. 송장내풍기는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어쩌보겠다고, 공화국을 없애겠다고 구린내나는 아가리질을 해댔다고 하니 어찌 참을수가 있겠는가.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꿰친 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세치 혀를 잘못 날름거린 후과가 얼마나 쓰라리고 뼈저린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분노와 복수의 웨침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착암기와 정대, 운전대를 잡았던 손에 서리발총검을 비껴들고 태평양건너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기세로 련결제방공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총전의 1.5배에 달하는 공사실적 기록!

이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하고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며칠동안에 이룩한 전투성과이다.

우리 공화국인구를 다 전멸시키겠다는 류례없는 망발을 쏟아낸 미치광이 트럼프의 숨통을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끊어버릴 멸적의 기상이 온 공사장에 차넘치는 속에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이 련속공격전을 들이댔다.

유압식굴착기운전공들이 상차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도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땅크병들을 방불케 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드는 반면에 공사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화물자동차운전사들도 적재함에 실은 막돌과 버력을 미친 늙다리불량배의 아가리에 쓸어넣는다는 심정으로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 불꽃튀는 수송전투를 벌려나갔다.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도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유압식굴착기를 수리하여 그 무한궤도로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개나발을 꿰쳐댄 트럼프를 무자비하게 짓이겨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긴장한 수리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분사업소에 운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한주일은 걸려야 한다던 유압식굴착기대수리를 모든것이 불비한 섬에서 단 하루동안에 진행하고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다사, 석화,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건설자들이 트럼프의 몸뚱이를 벌둥지로 만들어버릴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굴진실적을 높여나갔다. 그들은 부단히 새로운 기록을 창조할 높은 목표밑에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굴진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누구나가 시간마다 전투실적을 올리며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 미제를 족탕쳐버릴 멸적의 기상안고.

본사기자 황 철 민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죽탕쳐버리고야말 복수심으로 피를 끓이고있다.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무자비한 보복열의로 멸적의 지로 끓어번진 아침

정평군 률성협동농장에서

한손에는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날강도 미제와의 관가리결사전에 나서자!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단숨에 짓밟아버릴 멸적의 기상안고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정평군 률성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들은 지금 우리 인민을 완전히 절멸시키겠다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 미국의 늙다리가 보란듯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누구나 떳떳이 들어설 각오와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습니다.》

한동수, 리학구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성명에 접한 그날부터 원쑤의 아성을 송두리채 쓸어버릴 멸적의 기세로 가슴을 끓이며 모든 전투조직과 작전을 하고있다.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걸어온 아메리카늙다리의 목을 잘라 태평양에 치넣자!

어느 작업반 포전에서나 분노와 복수의 열기로 끓고있다.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손에 총을 틀어잡고 도발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깡그리 소탕해버릴 기세로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전투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다.

정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맹세드높이 매일, 매 시각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농산작업반 농장원들만이랴. 뜨락또르와 이동식탈곡기수리를 맡은 기계화작업반의 전투장에서도 복수와 분노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날강도 미제가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쳐갈기고 미국의 운명을 기어이 끝장내려는 불굴의 의지가 그대로 기계화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 흐르고있다. 분노의 서리발이 어린 낮을 들어잡은 농장원들도, 선반을 돌려가는 기계화작업반원들도 원쑤들을 단숨에 때려잡는 심정으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혁명적무장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은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맥동치고 있다.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꾸어온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투쟁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끓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리는 리창환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노력으로 하여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이들은 끝없이 솟구치는 격분에 치를 떨며 가을걷이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여 벌써 적지 않은 면적에 대한 통가리치기를 끝내였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전투의 중심고리를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정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아무리 운반수단이 잘 준비되였다고 하여도 철로 벼단운반실적이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그 주인인 농장원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이 안받침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트럼프의 더러운 주둥아리가 달린 대가리를 족탕치는 심정으로 농장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려 매일 높은 운반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나이를 헛치먹고 철없이 놀아대는 늙다리 트럼프의 돌대가리우에 풍년낟가리를 높이 쌓는 심정으로 가을걷이전투에서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지난 22일 아침, 모든것이 예전그대로였다.

사람도 거리도 일터도 전날과 마찬가지였다. 아침출근길은 여전히 새날의 희열로 들끓고 건설장의 동음은 변함없이 우렁차며 교정의 글소리 또한 더없이 랑랑하고 씩씩한 동해기슭의 공업도시 함흥시의 아침…

그러나 모든것이 달라졌다. 한순간의 눈으로는 볼수없는 충격과 격앙의 거대한 용어리가 대도시 곳곳에서 분분초초를 다투며 팽창되여갔다.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는 고사하고 정상인간의 두뇌로써 감히 생각할수도 꺼낼수도 없는 폭언을 제 집뜨락도 아닌 세계무대에서 공공연히 뇌까린 미국의 미친개 트럼프를 향해 동해가 격랑치고 산천초목이 증오로 치를 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날 아침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어느 한 직장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그 시간이면 늘 어김없이 진행되군 하던 교대간 인계인수사업이 늦어졌던것이다.

왜?

《일손을 놓을수가 없다. 트럼프, 그 전쟁미치광이의 정수리를 내려치는 심정으로 더 일하겠다.》, 《미국의 절멸을 보기 전에는 일터를 뜨지 않겠다.》…

어찌 흥남의 로동계급뿐이랴.

창조의 마치소리 드높은 룡성의 기계제작기지에서도, 주체공업의 자랑인 대규모비날론생산현장에서도 로동계급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리발쳤다.

드디어 때가 왔다. 제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소름끼치고 끔찍한 망발인지를 트럼프가 똑똑히 깨닫도록 현실로 보여주자. 미국이라는 오만가지 악의 덩어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파멸, 완전파피시키자!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리자!

충격과 분노, 격앙과 증오가 거세찬 활화산이 되여 온 함흥시를 뒤덮었다. 공장과 협동전야, 과학연구기지들마다에서, 마을과 집집의 평범한 사람들의 심장마다에서 미친개 트럼프를 때려죽이는 심정으로 증산의 동음, 창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갈 맹세가 9월의 하늘가를 진감시켰다.

그렇다.

2017년 9월 22일, 공업도시 함흥시의 아침은 이렇게 흘러갔다. 멸적의 불타는 의지로, 복수의 뜨거운 갈망으로!

본사기자 리 남 호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낼것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9월 21일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받아안고 이 나라 강토는 그대로 미제에 대한 증오의 활화산이 되여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세계의 면전에서 존엄높은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면서 감히 《완전파괴》와 2 500만의 절멸을 꿰쳐댄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향해 퍼치는 절규와 복수의 함성이 이 지구를 통째로 뒤흔들며 울려퍼진다.

어서빨리 저 미친 승냥이들을 요정내게 해달라!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면서 마련한 화성포들로 미국을 불태워버리자!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은채 우리의 순박한 녀인들도 이를 갈며 웨치는 이 말, 악의 무리들을 갈가리 찢어버릴듯 한 남녀로소모두의 증오의 목소리들과 격노의 눈빛들을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미제가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면서 함부로 날뛸 때마다 우리 인민이 항전의 의지를 폭탄처럼 재워 터뜨린 웨침들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의 분노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저런 미치광이, 악마들과 끌까지 사생결단하고 맞서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과학의 절대법칙으로 뇌리에 쪼아박았고 이제 남은것은 그 원쑤들에게서 참혹한 대가를 받아내고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리는 결산뿐이라는것을 백두산악처럼 마음에 간직한 인민이다.

이번에 온 세계앞에서 미국은 약자의 진면모와 귀축같은 살인마무리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낱낱이 드러냈다.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야 하는 경우 북조선을 완전히 피멸하는것외에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고 꿰친 트럼프의 망언은 미국은 절대로 선의와 량심을 가질수 없으며 영원히 이 지구상에 악의 제국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것이다.

너무도 기가 막힌 상전의 광태에 그 졸개까지도 한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난감해했고 트럼프의 망발이 매우 어둡고 위험한 연설이였다는 등 세계의 여기저기서 맹비난이 쏟아져나왔다.

벌써 지난 19세기에 세계에 이름난 한 작가는 눈에 빛을 담지 않은자야말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자이라고 자기 작품에 쓴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암흑같은자들이 우글거리는 끗을 문명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들어갈수 없는 괴물의 령역으로, 지옥으로 묘사하였다.

그 작가가 표현한 빛이란 다름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고 진리를 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사리분별을 아는 리성일진대 그레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꿰친 늙다리미치광이의 망막에 파연 단 한점의 빛이라도 있단 말인가. 현대판나치스두목이라는 지탄으로도 성차지 않을 그 악마의 망발을 두고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나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 그자체에 대하여 론할수 있단 말인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미국늙다리의 망언은 더는 희유로도, 제재로도, 그 어떤 군사적압박으로도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다는데 대한 참혹한 자인이고 비참한 타락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참 가긍하게 되였다. 그 무슨 제재는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교수대의 올가미가 되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폭제의 힘은 상상도 못했던 강자앞에서 《초대국》의 망신만 더 보태주게 되였으니 만사가 뒤틀린 그 심사와 발버둥질이 왜 요란스럽지 않겠는가.

그 늙다리가 우리의 어떤 반발까지 예상하고 지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폭언 한마디에 결코 가는 길을 멈춰서거나 놀랄 우리 인민이 아니지만 조선인민을 두고 세계면전에서 그런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을 불면서 함부로 모욕하고 부정한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조선은 인류의 등대이다.

막강한 재부와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어떤 나라들은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미국의 강권과 위협에 납작 엎드려 아첨하고있다. 눈앞의 리익만 추구하면서 세계인민들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악마로 하여 류혈과 피난, 치욕과 죽음을 당해도 눈 한번 까딱하지 않고 그 폭압에 손들고있다.

오늘에 와서 인류는 이 어지러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한몸을 깡그리 내대고 굴함없이 싸우는 나라가 파연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가 우리에게 극악무도한 위협을 가해올 때마다 세계도처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고 《조선에 대한 침략은 전인류에 대한 침략》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원래 백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없이도 죽는다고 했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각 우리 전체 조선인민의 분노만이 아니라 수억만 인류의 몸서리치는 저주와 증오앞에 서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이 세상 제일 위대하신 령도자를 진두에 모시고있다.

해방후 5년동안의 새 생활,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행복이 너무도 소중해 원자탄을 들고 달려드는 미국놈들과 보병총으로 용감히 맞받아싸워 승리한 영웅적인민이 바로 조선사람들이다. 바로 그럴진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세기를 이어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온 우리 인민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참다운 삶의 권리를 주고 행복을 알게 해준 그 5년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3년간의 전쟁에서 불사신의 영웅성을 발휘하게 했다면 세상에 돌도 없는 사회주의락원에서 대를 이어 존엄과 긍지를 누려온 수십년세월은 한없이 고마운 조국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수천만의 불사조들을 키웠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생활과 귀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톱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것이 이 땅의 민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시다.

세계의 방방곡곡에 번개처럼 퍼져간 우리 원수님의 성명구절을 한자한자 다시 우러러본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꿰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파연 이 세상의 그 누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인민을 지킬수 있는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질 사과를 한알한알 만져보시면서 수천정보의 파수발을 다 돌아보고싶은 심정이라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처럼 기뻐하시던 어버이의 모습을 온 나라가 눈물속에 뵈왔었다. 자신의 한몸보다 인민을 더 생각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며 우리 인민모두를 등에 업고서라도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실분이기에, 사랑하는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분이기에 조선민족절멸을 꿰치는 원쑤에 대한 그이의 증오는 그리도 격렬하신것 아니랴.

바로 이런분이심을 누구보다 심장으로 사무치게 절감한 인민이여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이의 성명 한자한자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의지와 결심으로, 승리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것이며 한몸이 그대로 결사항전의 불길이 되여서라도 미제승냥이들을 기어이 박멸하고야말 맹세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것이다.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기어이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리라.

끝까지, 끝까지 위대한 어버이당과 생사를 같이하리라.

원쑤격멸의 기상을 핵탄처럼 만장약한 영웅적조선인민앞에서 날강도 미제는 가장 참혹한 종말을 각오하라!

본사기자 리 건

만일 미국이 없었다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는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략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입니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가 유엔무대에서 2 500만의 우리 공화국인구를 전멸시키겠다고 한 폭언에 지금 세계가 법석 끓고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엔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연설과 같은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만일 미국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면서 비난과 규탄의 소나기를 퍼붓고있다.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이 파격적인 현실앞에서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기자인 마크 트웨인이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더욱 절감할것이다.

력대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분쟁과 충돌,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을 조성하며 무고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미국, 세계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미국,

만일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세계력사는 인류가 흘리고흘린 원한의 눈물로 얼룩지지 않았을것이며 세상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수 있었을것이다.

바로 그러한 악의 제국의 대통령자리에 게바라올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며 세상을 여느때없이 소란하게 만들던 늙다리가 이번에는 우리 나라를 완전히 피멸시키겠다는 천인공노할 궤변까지 쏠아놓으며 지랄발광하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망발을 정치가라기보다 깡패두목의 말, 전쟁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도발로 평가하며 깊이 우려하고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이여, 조선은 반드시 승리하거니 이 행성의 창창한 래일을 믿으라.

백두의 선군령장의 불호령이 온 지구를 진감하고있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우리 조선을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호령,

이는 악의 원흉, 철천지원쑤 미제의 마지막숨통을 끌장내는 력사의 철추이다.

만일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이 말을 오랜 세월 외우고외우며 수난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세상사람들의 눈물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로운 새 세계가 도래함을 알리는 장엄한 메아리이다.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조선의 승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울수 없는 영원한 법칙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주체조선의 청년대군은 500만 핵폭탄이 되여 죄악의 땅 미국을 통채로 날려보낼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것이며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신 력사적인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지금 이 땅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가슴가슴은 주체의 핵강국, 동방의 영웅조선이 련속 터쳐올리는 세계사적특대사변들에 완전히 얼혼이 나가 감히 우리 공화국에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미국의 깡패두목 트럼프를 정의의 불세례로 가차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기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백악관이나 골프장도 아닌 공식적인 유엔총회무대에 게바라나와 우리의 최고존엄과 국가주권을 걸고들며 그 누구의 《완전파괴》와 《절멸》에 대하여 꿰쳐댄 트럼프의 히스테리적망발은 우리 인민,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가장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추호도 용서치 못할 특대형범죄이다.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늙다리미치광이가 감히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과 공화국에 전면도전해온것으로 하여 조선청년들의 분노는 대륙간탄도로케트처럼 우주로 치솟고 대미보복열기가 서린 드세찬 합성은 수소탄폭음처럼 지심을 뒤흔들고있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청춘들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정신병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반미결사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청년전위들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섬멸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아무렇게나 짖어대기 좋아하는 트럼프라는 놈은 정치인이 아니라 깡패두목이며 사람이 아니라 미친개이다.

우리는 초보적인 사리도 분간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껄여대는 무지무도한 깡패인 트럼프가 《군사적선택》이요, 《초강도제재압박》이요 하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댈때마다 그 어리석음에 알아들을만큼 경고도 하였으며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때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와 수소탄폭음으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실지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으로 채 진화되지도 못한채 늙어빠진 트럼프는 끝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함으로써 역시 미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며 불을 즐기는자는 불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련한 트럼프와 그 일당은 침략과 강탈에 곱이 낀 눈을 씻고 조선청년들의 열혈심장마다에서 무엇이 용암처럼 터져나오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삶의 전부인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전위들이 우뢰와 같이 터치는 멸적의 웨침을 들으라.

위대한 백두령장께서 뢰성을 울리셨다, 500만 핵폭탄을 터뜨려 악의 제국 미국을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자! 미국미치광이들을 모조리 때려잡자!

개나발만 불어대는 늙다리의 허바닥을 쑥 뽑아버리겠다, 송장내나는 트럼프놈의 멱을 따치우고말겠다, 나에게 핵폭탄 한개만 달라, 탕장이라도 미국놈소굴에 날아들어 재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

악의 본거지에 날려보낼 멸적의 주체탄을 화성포에 재우면서, 트럼프의 노랑대가리에 돌씌울 쇠물을 펄펄 끓이면서, 인민군대앞대, 복대를 탄원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마끔 이렇게 벼르고있다.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놈들이 진짜불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해주려는것이 우리 선군청년전위들의 본때이다.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렬들과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7.27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지를 우리 세대가 보기 좋게 써줄것이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전위들이 백두의 번개처럼 내려치는 붉은 칼에 미국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산산조각나는가를 온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25일
평 양

분노의 웨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미국은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생겨난 나라이며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파괴와 살인으로 엮어지고 피로 얼룩진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침략과 략탈로 살쪄온 미국을 가리켜 사람들은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도 부른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씨족, 종족을 의미하는 제노스와 살해를 의미하는 사이드라는 단어를 합친 그리스말로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와 같은 표징으로 어떤 집단을 통채로 멸살시키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지로 미국의 형성과정은 인디안들에 대한 류혈적인 학살과 수탈, 미개척지에로의 추방과 같은 피비린 력사로 일관되여있다.

20세기초 니까라파의 진보적시인 루벤 다리오는 자기가 창작한 풍자시 《루즈벨트에게 고함》을 통하여 력사와 인류앞에 저지른 미국놈들의 죄행을 날카롭게 규탄하였다.

…
너는 미국
인디안혈통을 지닌
…
저 순박한 아메리카를 삼키려 드는
래일의 침략자
…

시에서는 처음부터 미제는 결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원조자가 아니라 오늘은 빠나마운하를 강탈하였지만 래일은 온 대륙을 통채로 삼킬 침략자로 될것이라는것을 예언하였다.

…
너는 덜돼먹은 사냥군
어찌 보면 미개한 원시인같고
어찌 보면 때벗은 현대인같고

웨침

이리 보면 단순하고 저리 보면 복잡한 놈
워싱톤을 닮았을가 말았을가
아니 네로를 더 닮았구나
…

시인은 여기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침략적성격을 띠고있는가를 보여주고 미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야수적인 전쟁광신자들이 모인 나라이라는것을 날날이 발가놓고있다.

에리한 필치로 포악무도한 미제에 대한 규탄정신과 반미감정이 하나로 응결된 분노의 웨침을 터뜨린 시인이 만일 세계를 소란케 하며 미쳐돌아치는 오늘의 트럼프를 보았다면 분명히 풍자의 붓을 또다시 들고 제노사이드의 모국-미국의 우두머리괴물을 한껏 조소하였을것이다.

생활은 힘센자들의 불장난이고 침략의 총알이 박히는 곳 즉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 타고앉은 나라들에 저들이 바라는 《번영》과 《미래》가 있다는 강도식론리에 물젖은 늙다리미치광이를 두고 《미국대통령에게 고함》이라는 또 하나의 량심의 시를 썼을것이다.

그렇다. 미국대통령이라는 인류의 원쑤, 평화의 교살자, 저주로운 살인자를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훌륭히 일떠선 구봉령의 새 분교

자강도 성간군 부지리의 구봉령기슭에 학생들을 위한 새 분교가 일떠섰다.

산골의 풍치에 잘 어울리게 아담하게 꾸려진 성간군 부지고급중학교 구봉령분교에는 갖가지 교구비품을 갖춘 교실과 번듯하게 닦아놓은 넓은 운동장 등 교육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자강도안의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를 따라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분교를 일떠세울 한마음으로 건설을 다그쳤다.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밀에 산골의 특성에 맞게 교사를 설계하고 건설자재들을 보장하는 사업과 함께 콤퓨터, 록화기, 액정텔레비죤, 악기들과 직판물들, 통식물표본 등 교구비품들과 여러가지 체육기재들을 마련하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 뜨겁게 어리여있는 구봉령에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분교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지난 9월 1일에 개학식을 한 새 분교에서는 지금 5명의 교원들이 3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학부형들을 비롯한 이곳 인민들은 강을 에돌아 학교로 오가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산골마을의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승용차, 통학렬차, 통학배를 보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며 따뜻한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자강땅을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오 은 별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 귀국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우리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이 25일 귀국하였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라오스, 방글라데슈,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8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여 2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2개 팀씩 다음단계에 진출하여 승자전을 벌리였다.

조별련맹전 2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음단계에 진출한 우리 나라 팀은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팀을 1:0으로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남조선팀과 대전하였다.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확고한 기술전술적우세로 남조선팀을 완전히 제압하고 2:0으로 통쾌하게 타승함으로써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하였으며 2018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하는 국제축구련맹 2018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한편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김경영선수는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았다.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성과는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발광하는 승냥이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해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김장산, 관계부문 일군들이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 돌아온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뜨겁게 마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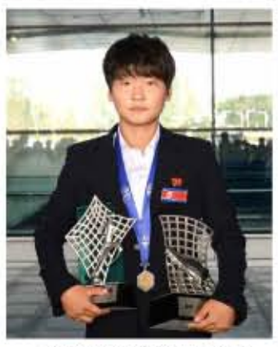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우리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수도의 거리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승리의 보고를 안고 선수, 감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주체체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체육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을 수여받은 김경영선수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개막식이 2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리주오내각부총리, 김영재대외경제상, 김인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무역부문 일군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봉식 조선국제전람사 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안고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들은 이번 전람회가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경제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수리아, 중국, 꾸바, 이란,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월남, 중국 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원동대학생체육축전 《새 세대-2017》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 귀국

원동대학생체육축전 《새 세대-2017》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25일 귀국하였다.

21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수한 남, 녀선수 670여명이 참가하였다.

남자유술 73kg급, 81kg급경기에 출전한 김철광, 리은성선수들은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완강한 투지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영예의 1위를 하였다.

또한 최문향, 안정순선수들이 탁구 녀자단체경기에서, 최수림선수가 녀자수영 나비영 50m, 100m경기들에서 각각 우승의 영예를 떨친것을 비롯하여 이번 축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우승컵 5개를 쟁취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생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지없이 드러난 대결광신자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당국이 《대화》의 면사포를 벗어던지고 북남대결자세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이전에 걸으로나마 표방하던 《대화》니 뭐니 하는것을 다 집어치운 남조선집권자는 《지금은 북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고 괴대를 돋구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이 있은 직후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게 《강력한 유엔제재결의》를 채택해달라고 애걸복걸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괴뢰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패거리들도 《북에 대한 제재압박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줴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대결광신자들의 본색은 감출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는것은 이자들이 운운하던 《대화》타령이 한갖 기만이며 괴뢰들의 골수에는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칠 흉악한 야망만이 짝 들어차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남북관계개선》의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우리 겨레는 누구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것으로서 사실상 반공화국제재압박을 골자로 하는 용납 못할 대결정책이다. 그것은 지금 괴뢰들이 《초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을 대화에로 유도》한다는 주제넘은 나발을 줴치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미쳐날뛰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들고나오자 저들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잘 이룬다고 넉두리질을 해댔다. 이것은 저들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추태였다.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사상 류례없는 제재와 압력, 봉쇄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거기에는 온갖 모략과 날조선전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측면에서 반공화국제재압박을 최대로 강화하려는 미국의 흉계가 짙게 깔려있다. 미국이 국방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그것을 터무니없이 헐뜯으면서 유엔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꾸며내고있는 사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련속 투입하면서 괴뢰들과 함께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그 무슨 《초강도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고아대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매국역적들이 바로 현 남조선집권세력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이후 미국이 유엔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가장 야만적인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내자 괴뢰들은 《지지》니, 《환영》이니 하고 역스럽게 놀아대면서 《강한 고통을 체감》하게 될것이라느니, 《상당한 압박효과》를 낼것이라느니 하고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였다. 지어 유엔의 《제재결의》에 따른 《다양한 외교적조치》를 취하고 강도높은 《독자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한편 괴뢰들은 미국상전에게 탄도미싸일 탄두중량제한해제를 구걸하고 미제침략군의 핵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들을 끌어들여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우리를 위협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정례배치를 기도하는가 하면 새로운 무장장비들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지어 미국의 전술핵무기재배치까지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구실로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괴뢰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등에 업고 사상 류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박으로 우리를 어쩌보려고 미쳐날뛰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허튼 말장난질을 해대고 있는것이다.

괴뢰들이 《대화》니 뭐니 하는것은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고 북남관계파국을 더욱 심화시키는 저들의 매국반역적정체를 가리워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하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에 대해 떠들어댈 꼬물만 한 자격도 체면도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동족의 노력에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로 대답한것이 누구이며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미친듯이 걸고들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작당하여 《대북제재압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매국역적들이 누구인가. 북남관계의 파국적현실은 앞에서는 《대화》를 부르짖고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동족대결소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대화와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괴뢰들이 《가장 큰 도전은 북핵》이라느니,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느니 하고 줴쳐대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팡분하면서도 《대화》나발을 불어대는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도발과 모독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구실로 외세와 함께 류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명백히 여론기만행위이다.

괴뢰들의 《대화와 압박병행》나발은 통할수 없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은 오히려 북남대화의 길을 가로막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민족의 요구와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와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다.

괴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북남대화와 관련한 립장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라 설 하

《군사적대응》은 종국적멸망의 길이다

전쟁열에 들뜬 미제호전광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안을 다시 꺼내들고 허세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일본렬도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해상으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를 또다시 발사하였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어느 한 공군기지에 코를 들이민 트럼프는 늙마에 없는 힘까지 짜내며 첨단무기들이 《상대를 산산조각낼수 있다.》느니, 《령혼이 떨리고 심판의 날을 예감》할것이라느니 하고 기염을 토했다. 미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마끔 공식석상에 나서서 저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안을 준비》하고있다느니, 《군사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런 속에 미국방장관 마티스는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취할수 있는 군사적선택안》을 가지고있다는 가소로운 수작까지 내뱉았다.

트럼프패거리들이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군사적대응》에 대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있는것은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은 미제호전계층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감히 북침핵전쟁도발을 기도하면서 군사적모험의 길에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B-1B》핵전략폭격기 2대와 《F-35B》스텔스전투기 4대로 편성된 타격편대를 남조선상공에 출격시켜 우리의 전략적대상들을 겨냥한 폭격훈련을 감행한데 이어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며 《북을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적선택》밖에 없다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껏 미국은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압박에 미친듯이 매달려왔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제재결의》들을 무려내고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아도 위대한 병진의 기치따라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우리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리성있는 사람들은 미행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미국의 늙다리전쟁미치광이를 비롯한 호전광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군사적대응》이니 뭐니 하며 광태를 부리고있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박을 더한층 강화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 나아가서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트럼프패거리들의 분별없는 망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대응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양너머에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며 우리에 대한 천벌맞을 그 어떤 군사적선택도 미국의 종국적파멸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비극은 미국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선택안》을 운운하는것과 관련하여 괴뢰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호기등등해 날뛰고있는 것이다.

초보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반도의 현 군사적대치상황에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선택안》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미국이 이따위 유치한 소문을 내돌리는것은 괴뢰들을 안심시켜 북침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교활한 술책의 발로이다.

그런데도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흉측한 기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참수작전》이니, 《해상봉쇄》니, 《싸이버공격》이니 하며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이다.

미국이 《군사적대응》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날로 더욱 억세여지는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애국의 길로 이끌어준 손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는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들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며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동포청년의 류다른 체험담을 전한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홍황인동포,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은 알고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동포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였었다. 그러던 그에게 자신의 민족적뿌리를 생각하게 하고 인생길을 개변시켜준 계기가 있었다.

10여년전 그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우연히 류학동출신의 한 동포청년을 알게 되였다. 온통 일본사람들뿐인 회사에서 버젓이 조선사람이름을 가지고 자그마한 위축감도 없이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이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열심히 벌리는 그 청년의 모습은 홍황인의 가슴속에 부끄러움의 소용돌이가 일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용기를 내여 그에게 자기도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고백하였다. 이역땅에서 한피줄의 정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둘은 곧 딱친구로 되였다. 며칠후 홍황인은 그 청년의 손에 이끌리여 류학동에서 조직한 한 모임에 참가하였다. 《홍황인동무》라고 정겹게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는 청년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나와 흥겨운 노래춤을 펼쳐놓는 처녀들에게서 그는 따뜻한 동포애와 민족의 향취를 한껏 느끼게 되였다. 그날 홍황인은 지금껏 자신을 얽어매고있던 속박의 사슬이 풀려져나감을 깨달았다. 지금껏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멀리하며 살아왔지만 동포애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런 따뜻한 대가정속에 파묻히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허무하게 보낸 지난날을 자책하면서 잃을번 했던 뿌리를 다시 찾을것을 결심한 그는 류학동조직에 몸을 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에 나서게 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헌신해나가자는 조국청년들의 뜨거운 격려의 말은 애국의 대오에 갓 들어선 홍황인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로 되였다.

동포사회의 품으로 돌아온 홍황인은 뜻밖의 행운을 받아안았다. 조국에서 보내준 사랑의 장학금을 받아안게 된것이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든 어버이사랑의 력사를 알게 된 그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 사랑의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며 그는 대학을 마치게 되였다. 졸업후 그는 결심하였다.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과 총련조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자.

이렇게 되여 그는 류학동 전임일군이 되였다.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준 조국과 총련조직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홍황인은 지난날의 자기처럼 일본사회에 파묻혀 살아가는 동포청년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여 애국의 대오에 세워주는 사업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필승의 신심이 굳세여진 나날

지난 4월 오사까지역의 동포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조국방문단을 꾸고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땅으로 찾아왔다. 대다수가 총련과 단일단체들의 초급일군들이였다. 당시는 미제와 괴뢰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이 최후발악적으로 감행되던 때였다.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고 하여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땅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그 모든것은 가�figure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조국땅은 여전히 활기에 넘쳐있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불패의 선군정치로 위력떨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비약의 나래를 펴고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어버이조국의 벅찬 숨결은 그들의 가슴속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방문단성원들의 가슴가슴은 애국의 열기로 세차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조국을 받들어 애국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설 의지가 모두의 가슴마다에 더욱 굳어졌다.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애국의 키가 자라면 못 잊을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께서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애국위업의 새 전성기를 기어이 펼쳐놓을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핵강국의 지위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더는 부정할수도 외면할수도 없는 막다른 처지에 놓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최근 미국과 남조선에서 우리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제재무용론》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있다.

미국의 전, 현직 행정부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 언론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방정보국은 우리의 핵억제력과 관련한 《기밀평가보고서》라는데서 《북이 대륙간탄도로케트를 포함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라고 썼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이제는 북의 핵보유를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자인하였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전 6자회담수석대표를 비롯한 이전 미행정부의 주요인물들도 《미국은 북의 핵무기를 묵인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북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재가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것은 이미 실증되였다.》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비난하였다.

미국의 안보문제전문가들 역시 《게임은 끝났다. 북이 이겼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CNN방송, AP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등 주요언론들도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이후 미국내에서 《북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견해들이 나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우리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당국의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전 괴뢰통일부 장관 정동영 등은 《북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보는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지어 괴뢰정보원소속 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들도 《핵보유국인 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왔다.》,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하는것이 옳다.》고 자기 견해들을 내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렬에 올라선 조건에서 〈북핵현실론〉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북의 핵보유국인정은 미국내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있는 형편이다.》, 《미국도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궤도에 진입한것을 시인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정 철

미국산 군수장비페기품창고로 전락된 남조선

《한미동맹》을 넘불치럼 외워대는 괴뢰들이 미국을 신주처럼 섬긴 대가를 톡톡히 받고있어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18일 남조선 《서울신문》에 의하면 2014년 1 500억원을 들여 미국에서 사들인 대형수송직승기 14대가 생산된지 45년이 지나 폐기하였던 군수품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더우기 미국은 파철에 불과한 이 직승기들을 괴뢰들에게 팔아먹고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판매마저도 단절해버렸다고 한다.

괴뢰들은 이에 대해 직승기들의 성능을 개량한다 해도 수명을 담보할수 없다고 푸념질만 할뿐 미국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있다.

미국이 1970년대에 생산하였다가 2009년에 전량 폐기시켜 사막의 한 창고에 내버려두었던 해상초계기를 괴뢰들에게 팔아먹으려 하고있는 사실도 폭로되였다.

이것은 최근에 밝혀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는데서 구매자들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괴뢰들은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이다.

미국에는 괴뢰들에게 무장장비들을 제공할 때에 최신무장장비는 절대 안되며 실컷 써먹다가 폐기품으로 떨군것이거나 그것도 핵심장치나 부분품들을 없애야 한다는 그 무슨 내적인 규정이라는것이 있다.

미국은 괴뢰들에게 문제의 14대 대형직승기를 팔아먹으면서 GPS장치가 내장된 항법장비와 미싸일경보체계, 방탄장치, 자동조종장치, 위치측정장치 등을 떼내고 넘겨주었다.

괴뢰들이 순항미싸일을 구걸하며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에는 제꺽 판매하였다. 교고도무인정찰기도 괴뢰들에게 팔때에는 신호수집기능이 없는것을 팔아먹었다.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상업에서 보편적순리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끌어들여 구입순위가 세계 1위인 괴뢰들에게 차례진것은 판매등급에서 뗀 마지막자리와 파고철과 같은 군수장비들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야만 하는 가련한 운명이다.

【조선중앙통신】

제36차 윤이상음악회 진행

제36차 윤이상음악회가 25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박춘남문화상, 홍경호 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의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의 교원, 학생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음악회에는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과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관현악 《아리랑》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윤이상작곡들인 초기가곡 《고풍의상》,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와 녀성독창 《물레타령》, 피아노3중주 《운명의 손길》, 슈베르트작곡 피아노5중주 《송어》등의 종목들을 재치있고 세련된 연주기법과 풍부한 성량, 조화로운 울림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의 독특한 예술적기량과 쩨인 안삼블로 일관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보수부활을 노린 어리석은 술책

한때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기세에 눌리워 움츠러들었던 괴뢰보수패거리들이 최근 다시 고개를 쳐들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보수《정권》의 파멸과 함께 산지사방으로 흩어져버린 보수잔당들을 재규합하기 위한 그 무슨 《보수대통합론》을 들고나오고있다. 이자들은 지금 보수통합의 명분을 얻기 위해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당내의 주요친박계 인물들을 제거하는 《인적청산》놀음을 벌리고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것들은 박근해와 서청원, 최경환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하였다. 이런 속에 얼마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역도는 《배가 정상운영》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바른정당》것들이 돌아오는것이 《정상》이라고 떠벌이였다.

한편 극우보수단체들의 떨거지들은 보수의 부활을 피하며 집권세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것들과 한짝이 되여 날뛰면서 보수층의 재집결움직임에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보수의 재집결을 노린 그 무슨 《국민보고대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이요 뭐요 하면서 보수세력규합에 팔걷고나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재집권의 개꿈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다음해 6월에 있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저들의 이전 지위를 되찾기 위한 기회로 여기면서 벌써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느니, 《〈정권〉을 되찾겠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3야당의 단일후보론》이라는것까지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자는 다음해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야당들이 각기 후보를 내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유한국당》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고아댔다. 보수통합의 간판밑에 흩어져있는 보수잔당들을 긁어모아 세력을 확장하고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권력야욕을 실현하려는것이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속심이다.

《바른정당》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무슨 《정통보수》니 뭐니 하며 《자유한국당》과 한사코 맞서고 보수진영의 주도권쟁탈전에 기승을 부리던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이 상태로는 보수가 살아남을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자유한국당》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CNN방송, AP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등 주요언론들도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이후 미국내에서 《북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견해들이 나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우리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당국의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전 괴뢰통일부 장관 정동영 등은 《북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보는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지어 괴뢰정보원소속 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들도 《핵보유국인 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왔다.》,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하는것이 옳다.》고 자기 견해들을 내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렬에 올라선 조건에서 〈북핵현실론〉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북의 핵보유국인정은 미국내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있는 형편이다.》, 《미국도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궤도에 진입한것을 시인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정 철

미국산 군수장비페기품창고로 전락된 남조선

《한미동맹》을 넘불치럼 외워대는 괴뢰들이 미국을 신주처럼 섬긴 대가를 톡톡히 받고있어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18일 남조선 《서울신문》에 의하면 2014년 1 500억원을 들여 미국에서 사들인 대형수송직승기 14대가 생산된지 45년이 지나 폐기하였던 군수품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더우기 미국은 파철에 불과한 이 직승기들을 괴뢰들에게 팔아먹고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판매마저도 단절해버렸다고 한다.

괴뢰들은 이에 대해 직승기들의 성능을 개량한다 해도 수명을 담보할수 없다고 푸념질만 할뿐 미국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있다.

미국이 1970년대에 생산하였다가 2009년에 전량 폐기시켜 사막의 한 창고에 내버려두었던 해상초계기를 괴뢰들에게 팔아먹으려 하고있는 사실도 폭로되였다.

이것은 최근에 밝혀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는데서 구매자들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괴뢰들은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이다.

미국에는 괴뢰들에게 무장장비들을 제공할 때에 최신무장장비는 절대 안되며 실컷 써먹다가 폐기품으로 떨군것이거나 그것도 핵심장치나 부분품들을 없애야 한다는 그 무슨 내적인 규정이라는것이 있다.

미국은 괴뢰들에게 문제의 14대 대형직승기를 팔아먹으면서 GPS장치가 내장된 항법장비와 미싸일경보체계, 방탄장치, 자동조종장치, 위치측정장치 등을 떼내고 넘겨주었다.

괴뢰들이 순항미싸일을 구걸하며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에는 제꺽 판매하였다. 교고도무인정찰기도 괴뢰들에게 팔때에는 신호수집기능이 없는것을 팔아먹었다.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상업에서 보편적순리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끌어들여 구입순위가 세계 1위인 괴뢰들에게 차례진것은 판매등급에서 뗀 마지막자리와 파고철과 같은 군수장비들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야만 하는 가련한 운명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박근혜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집단유인랍치된 우리 녀성공민들을 공화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팡범히 벌어지고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쎈터 소장이 얼마전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앞에서 북녀성종업원들의 집단유인랍치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그는 북녀성종업원들이 집단유인랍치된지 1년이 훨씬 넘도록 무엇 하나 밝혀진것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이미 공개된 사건을 놓고 그 무슨 《신변안전》을 운운하며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은데 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북녀성종업원들에 대한 집단유인랍치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집단유인랍치사건을 인도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시간을 끈다고 하여 죄가 무마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주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집단유인랍치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단체성원들이 련일 시위를 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각계 시민단체대표들이 《2017한반도평화회의》를 가지고 북녀성종업원송환운동에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량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얼마전 대전교도소앞에서 《공안탄압 반대, 량심수석방과 사면, 북련을 위한 공동행동》이 량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까지 단 한명의 량심수도 석방하지 않았다고 규탄하였다.

대전교도소는 일제강점시기부터 악명높던 곳이라고 하면서 량심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금 감옥들에는 주의주장이 다르다는 리유로,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는 리유 등으로 구속된 수많은 량심수들이 갇혀있다고 까밝혔다.

량심수들이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갇혀있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모든 량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도착

빅또르 마누엘 루까스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도이췰란드에 갔던 국가품질감독위원회대표단 귀국

리철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감독위원회대표단이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된 2017년 국제규격화기구총회에 참가하고 25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성국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중하였다.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무장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으며 인류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머리에 이고 살고있다.

평화보장은 초미의 국제적문제로 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을 바라고있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활동은 만사람의 실망감을 자아내고있다. 특정한 국가의 전략적리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기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주권존중, 군사적위협과 무력사용의 금지, 자위권행사를 원칙으로 쪼아박은 유엔헌장이 왕왕 무시되고있다.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특정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뻐젓이 감행되고있다. 상임리사국의 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외면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하여 유엔성원국이 부득이하게 취하게 되는 자위적조치는 한사코 탈라붙어 문제시하는 비정상적이며 불공평한 행위가 벌어지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떻게 특정한 나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바로 얼마전에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동원하여 우리 국가가 자위를 위하여 단행한 정정당당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들며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으로서 절대로 문제시될것이 없다.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또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상임리사국들도 많은 핵시험을 하였지만 그것때문에 제재를 받은적은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놀아나 우리의 핵시험만을 시비질하고 문제시하였다.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그 무엇을 하거나 우리 일이 잘되기만 하면 배아파하며 못되게 놀아대군 하였다. 이번에도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떠들어대며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느니, 《도발》이라느니 뭐니 하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들이대야 한다고 고아댔다. 실지 우리가 위협이 되여서가 아니다. 리유는 단 한가지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간다는것이다. 바로 이것때문에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경제제재와 봉쇄로 우리 국가를 질식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말그대로 미국의 시녀노릇을 하였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국가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당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오늘과 같이 된데는 그 체모와 덩지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놀아난 일부 성원국들에도 책임이 있다. 한때 우리 주변의 한 나라는 세계렬강들이 강하게 반발하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품을 들여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것처럼 달려들 때에도 자위는 주권국가의 빼앗을수 없는 권리라고 맞서나갔다. 그들은 핵무기가 미국과 그 공모자들에 의하여 독점되면 핵전쟁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하면서 주동적으로 핵무력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나라가 미국의 대조선《제재결의》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결코 우리의 수소탄시험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라는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리기적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데로부터 그렇게 행동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에 동조한 나라들은 기구를 미국의 롱락물로 만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공공연히 가담한것으로 되였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유엔성원국들은 유엔기구체계안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이고 불공정한 낡은 구조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제법우에 군림하여 렬강들의 정치적도구로 도용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상임리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유엔을 일국의 독주무대로 만들려는 미국의 행동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세계의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유엔은 특정국가들이 독판치기를 하는 란장판으로 되여가고있다. 유엔헌장이 우위인지 아니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의사가 우위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특정국가에 롱락당하고있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결정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악용되고있는것을 막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응당 총회의 권능과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우리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특정국가들이 저들의 자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리 학 남

제 처지도 모르고 설쳐대지 말라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을 두고 푼수없이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내각관방장관이 우리가 탄도로케트를 다시 발사하는 경우 요격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이 일본 홋가이도상공을 날아넘어 태평양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였다.

일본은 닭쫓던 개 먼산 바라보는 꼴이 되고말았다.

많은 나라 언론들이 또다시 발사된 조선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은 일본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까불어대지 말라는 신호이다, 일본이 가지고있는 미싸일요격체계로는 조선의 탄도로케트를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라고 평하였다.

할수 없는짓을 하겠다고 희떱게 놀아대다가 망신만 당하는 일본의 가련한 처지에 대한 조롱이다.

문제는 외상 고노와 방위상 오노데라, 수상 아베를 비롯한 일본고위정객들이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우리에 대한 압력에 협조해달라고 구걸질하고있는것이다.

지난 8월말에 우리 전략군이 발사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가 일본 홋가이도의 오시마반도와 에리모갑상공을 가로질러 통과하여 북태평양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명중타격하였을 때부터 이자들은 본격적인 구걸외교를 벌렸다. 고노는 도이췰란드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한《제재결의》의 조기채택을 위해 긴밀히 련대한다, 중동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반공화국제재의 빈구멍을 막아야 한다 어쩌다 하며 잘망스럽게 놀아댔다. 오노데라는 미제7함대사령관과 만나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일미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련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고 경망스럽게 아양을 떨었다.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 참가한 수상 아베와 외상 고노가 뉴욕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우리에 대한 압력에 협조해달라고 비루한 청탁외교에 나선것은 더욱 가관이였다.

한쪽에서 수상 아베가 아프리카나라 수뇌자들을 만나 대조선압력강화를 청탁할 때 다른쪽에서는 외상 고노가 이 나라, 저 나라 외무상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그 누구의《정책변경》을 위한 협력을 구걸해댔다. 대조선《제재결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잡소리를 치면서 《전례없는 압력》이니, 일본주도하의 《결의의 실효성제고》니 뭐니 하고 주제넘게 흰목을 뽑았다. 그를 위해 중국과 로씨야에 작용을 가해야 한다고 너덜거렸다.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정치난쟁이 일본이 그 누구에 대한《압력》에 대하여 훈시질하며 거인흉내를 낼 정도로 유엔무대는 란장판이 되였다.

사태의 심각성은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히스테리적인 나발을 불어댈 때 일본우익정객들이 저들에게 어떤 후과가 차례질지 분간도 못하고 그 무슨《압력》과 《정책변경》따위의 헛소리를 치며 맞장구를 쳐댔다는데 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싫든좋든 누비돗자리바닥에 자빠져 감기를 앓아야 하는것이 일본의 궁색한 처지이다.

그렇다고 저승길까지 따라갈셈인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돌멩이에 얻어맞기가 일쑤이다. 살구멍을 찾는데서는 누구보다 참새골을 잘 굴린다는 일본정객들이 천하의 정치저능아인 트럼프의 광태에 덩달아 놀아나며 섬나라의 전도를 망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국가의《정책변경》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속에서 만난을 각오하고 시련의 천만고비를 헤치며 지키고 빛내여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혁명로선이다. 하물며 우리가 가질것은 다 가진 오늘에 와서 일본따위가 주체조선의 눈부신 전진을 감히 가로막아보겠다는것은 부지깽이로 지구의 자전을 멈춰세우겠다는것과 같은 황당무계한짓이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망상에서 빨리 깨여나는것이 좋다.

조선인민앞에 헤아릴수 없는 반인륜적죄악만을 저지른 일본으로서는 그런 개꿈을 꿀 처지가 못된다. 우리 천만군민은 과거죄악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일본과 단단히 계산하려고 벼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피맺힌 한을 품은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앞에서 들까불지 말아야 한다.

리 효 진

깡패두목의 히스테리적객기

극악한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은 미국의 트럼프가 미친개소리를 내지르고있다.

력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국가의《완전파괴》라는 광언을 함부로 늘어놓았다.《정권교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 공화국북반부인구를 다 전멸시키겠다는 미치광이의 특대형반인류적망발은 온 세계를 경악시키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산송장에 불과한 늙다리 트럼프가 우리의 천만군민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받드는 최고존엄을 감히 모욕하면서 게거품을 물고 악다구니질을 해댄것이다.

지난 시기 트럼프패거리들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의《전략적인내》정책이 완전실패하였다고 떠들면서 대조선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라도 가져올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뒤골방에 틀고앉아 내놓은것이《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였다. 얼마후에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한《4대 기조》라는것을 내놓고 조선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쪼아박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한것이였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옹근 하나의 대규모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을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를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을 련속 벌렸다. 미제침략군의 특수전부대의 살인악당들이《참수작전》을 떠들며 도발의 칼을 갈았고 악의 소굴인 미중앙정보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전문기구까지 조작하고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음모까지 꾸미며 미친듯이 발광하였다.

우리 국가는 련속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발사훈련,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멋모르고 설쳐대는 트럼프패거리들이 미처 정신차릴새 없이 강타를 들이대였다.

트럼프가 이번에 유엔무대에까지 나서서 비린청을 돋구며 절멸에 대해 운운한것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에 질겁한 미치광이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한갖 장사질이나 해먹던 트럼프가 외교석상에서 한 나라의 존재를 그처럼 악의에 차서 부정하고 모욕하며 없애겠다는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댄것은 전례없는것이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제땅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의 히스테리적인 망발을 두고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호전적인 위협, 정치인이라기보다 깡패두목의 정신병적인 객기로 몰아대고있다.

이번에 트럼프는 국제사회에 정치망나니, 깡패로서의 자기의 더러운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평화의 교살자, 암적존재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피를 끓이고있다.

미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으로 뭉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와 수소탄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기질이다. 서리발총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이 땅에 감히 더러운 흉계실현을 위해 기어들려는 침략자들을 단매에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미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사기지들을 사정권안에 둔 우리 혁명무력의 다종다양한 전략적핵타격수단들은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세계는 전쟁을 부르짖으며 감히 우리 국가를 어째보려는 트럼프와 전쟁사환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라 명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

77개집단 상회의에서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이 22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77개집단 상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창립 70돐을 계기로 진행된 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지속개발의정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궁을 없애고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이라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의 정책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2020년까지 리행하게 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방대한 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투를 벌리면서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리상거리인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의료봉사시설들, 교육문화거점들을 마련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의 리상이며 꿈이며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운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적환경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무대에서는 날로 허물어져가는《초대국》의 지위를 어떻게 하나 고수해보려는 일개 특정한 나라가 주권국가의 발전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빼앗기 위한 비법적이고도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한해에도 몇차례씩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수십만의 방대한 병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고 제도전복을 실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경제전반을 질식시켜보려고《보다 강력한 국제적대응》으로 우리 나라에 경제봉쇄를 가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다니며 그 리행을 구걸, 강요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국제법적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유엔성원국이라면 마땅히 대조선《제재결의》의 리행에 발을 들여놓기에 앞서 먼저 이 결의들의 적법성여부부터 똑똑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가 진행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은 반세기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 위성발사가《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제일먼저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응당 세계최대의 핵무기고와 탄도미싸일들, 위성들을 보유하고있는 미국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은 모두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비법의 문서장으로 전면배격하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국제법적근거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타고앉기 위하여 미국이 비법적으로 조작해낸《제재결의》들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러한 비법적인 시도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우리 인민을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명분만 더해줄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인 기준과 관념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깔보고 적대시하면서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가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세운 지속개발목표들은 결코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77개집단의 단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7개집단 상회의 진행,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제재를 배격하는 선언 채택

77개집단 상회의가 22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77개집단성원국 외무상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이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77개집단성원국들의 일치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이 반영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배격하는 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반대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제재조치들을 즉시 해제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이룩한 승리

얼마전 수리아정부군이《이슬람교국가》가 3년동안 포위하고있던 데르조르시에 대한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결과 군용비행장과 주요유전, 도로, 요충지들을 탈환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리아정부군이 이룩한 반테로전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와 수리아정부군은 대규모적인 군사적공세로 테로분자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고 나라의 많은 령토를 해방하였다.

《이슬람교국가》가 장악하고있던 주요거점들을 탈환하는데 성공한 수리아정부군은 련속적이고도 드센 타격으로 자기들의 전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지난 6월 수리아정부군은 1만발의 포탄과 로케트탄으로《이슬람교국가》의 주요기지를 타격하여 전략적요충지의 하나인 알레뽀시의 주변농촌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작전과정에 1 500여명의 테로분자들이 포로되고 800명이상이 소멸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알레뽀시해방이후 수리아정부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된다. 지난 5월에도 수리아정부군은 알레뽀시동부 농촌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하여 수천명의 테로분자들을 살상하고 많은 군사기술기재들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둔바 있다.

최근 수리아정부군이 진행하는 모든 작전들은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테로분자들은 완전히 수세에 몰리여 좁은 지역으로 압축되고있다.

사실 수리아에서 반테로투쟁이 개시되던 첫 시기에만도 이 나라의 정세는 매우 위급하였다. 미국의 묵인과 비호두둔하에《이슬람교국가》는 수도 디마스끄까지 위협하며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도처에서 살인, 테로, 폭행 등 극악한 만행들을 일삼았다.

수리아에서의 정부전복을 꾀하고있던 미국은《반테로전》의 간판을 내들고 이 나라 정부의 승인도 없이 기어들어와 정세악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테로분자들의 활동을 막후에서 부추기면서 수리아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였다.

한편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나라의 중요하부구조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지어 수리아정부군진지를 고의적으로 타격하여 수백명의 병사들을 살해하고서도《오폭》과《실수》였다고 둘러치는 파렴치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수리아정세가 지금과 같이 호전되기 시작한것은 전적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이다. 9월 12일현재 수리아정부군은 알레뽀시와 팔미라시, 라따끼야도를 포함하여 령토의 대부분지역을 해방하였다. 수도 디마스끄와 나라의 북부지역을 련결하는 기본교통로와 남부국경구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많은 유전들과 가스밭들을 탈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경제제재를 타파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수리아인민이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이룩한 성과는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반수리아책동이 분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미국은 더욱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수리아정부를 한사코 화학무기공격을 감행한 범죄자로 몰아붙이려 하고있다. 이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비법적인 미군사기지건설을 비밀리에 추진시킨 사실도 얼마전에 드러났다. 미국의 이 모든 책동은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고 분렬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로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반제자주적립장을 꺾지 못하고있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는 어느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수리아를 반대하여 일어난 전쟁의 원인은 다름아닌 수리아정부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원칙적인 립장을 고수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하여 그는 수리아인들은 서방과 그 추종세력들의 음모를 짓부시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다고 하면서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서방의 책동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수리아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유럽에 떠도는 랭전기운

최근 로씨야-벨라루씨합동군사연습《서부-2017》이 막을 내렸다. 벨라루씨경내에서 한주일동안 진행된 이번 군사연습에는 1만 2 700명의 병력과 70대의 전투기, 250대의 땅크 등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였다.

군사연습은 로씨야와 벨라루씨의 안전을 담보하고 쌍방의 각급 참모부들사이의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며 두 나라 군대의 무기 및 지휘체계를 련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로씨야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쏘련시기에도《서부》계렬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당시 연습은 나토를 견제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으며 서부국경지역에서 쏘련이 진행한 군사연습들중 규모가 가장 큰 전략적군사연습이였다고 한다. 쏘련이 붕괴된 후 군사연습은 중지되였다가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였다. 2009년에 처음으로 벨라루씨와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그때부터 2년에 한번씩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여오고있다.

이번《서부-2017》합동군사연습은 로미관계가 복잡한 속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나토가 신경을 도사렸다. 도이췰란드국방상은 군사연습에 참가한 실지병력은 10만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번 군사훈련이 또 한차례의 전략적위협으로 된다고 밝혔다.

훈련에 앞서 로씨야와 벨라루씨는 다같이 이번 군사연습이《방어적성격을 띤 연습》이며 유럽전체와 린접국가들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을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하지만 나토는 군사연습을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로씨야가 벨라루씨와 함께 올해에 큰 규모로 군사연습을 진행한것은 자기 코앞에 무력을 전진배비한 나토에 보내는 경고나 다름바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로씨야에 있어서 랭전종식후 자국국경가까이까지 지배령역을 확대한 나토의 존재자체가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나토는 동유럽에 형성해놓았던 로씨야의 세력권을 거의나 없애버렸다. 벨라루씨 하나만이 남았다.

로씨야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북유럽국가인 핀란드는 나토동반국으로서 나토와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로씨야는 서서히 나토의 포위환속에 들어가고있다.

나토의 동유럽에로의 확대가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완성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는것만큼 그것은 필연코 군사훈련을 동반하게 된다.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로씨야의 군사적위협을 막는다고 하면서 나토성원국들의 군사연습이 때없이 진행되고있다.

로씨야서부군관구 사령관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6월부터 유럽에서 약 50차례의 군사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여기에 미군을 비롯하여 총 6만명정도의 나토군병력이 참가하였다.

특히 로씨야와의 린접지역에서 나토군의 기동 및 전투훈련의 회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현재 발뜨해수역에서는《아브로라-2017》훈련이 진행되고있다. 이 훈련에는 스웨리예,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또니아, 리뜨바에서 온 약 2만명의 군인이 참가하였다.

이달말 뽈스까의 와르샤와에서는 1만 7 000명의 인원과 3 500대의 전투기술기재가 동원되는《드라곤》훈련이 진행될것으로 예견되여있다. 여기에는 뽈스까에 주둔하고있는 미군기갑려단도 참가할것으로 계획되여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로씨야가 진행한《서부-2017》합동군사연습이 나토를 견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앞으로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와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에 대응한 로씨야의 군사적움직임이 보다 강화될것이며 동유럽지역이 나토와 로씨야사이의 힘의 대결장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로씨야와 나토가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 벌리는 군사연습들은 랭전시기를 방불케 한다고 언론들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트럼프의 망발을 규탄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0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이란을《테로지원국》으로 몰아붙이다 못해 이란과의 핵합의를 미국의 수치로 헐뜯으면서 재협상을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지몽매하고 심술사나운자의 악행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망발은 허위정보와 무근거한 주장으로 일관되여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란은 핵합의를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52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